

# “스트레스 날려 버려요”

## 제5회 경기도 학생동아리 종합발표회

포천종합고등학교(교장 이광호)는 지난 2일 고교 3학년학생과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경기도 학생동아리 종합발표회'를 포천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개최했다.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이 주최하고 포천중고교 주관한 이날 행사는 수능이후 고3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허정희(포천중고 3년)학생과 김경배(동남고 3년)학생이 진행한 이날 행사에는 ▶포천중고 관악부(관악연주)와 무용부(현대무용), 풍물

부(풍물) ▶포천고등학교 PEDT(그룹사운드)와 열손가락(수화) ▶영북종합고등학교 어울림(여성중창)과 기세기(댄스) ▶관인고등학교 관인댄스파워팀(힙합댄스) ▶동남고등학교 재즈매니아(재즈댄스) ▶일동종합고등학교 이클립스(그룹사운드) 등 총 6개학교 10개 동아리가 출연해 평소 갖고 닦은 끼를 선보였다.

이광호 교장은 “무대에서 펼쳐지는 각 학교 동아리들의 활동이 좀 더 다채롭고 활기찬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며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축제의 장으로 승



지난 2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회 경기도 학생동아리 종합발표회에서 포천중고 관악부 학생들이 Ross Play를 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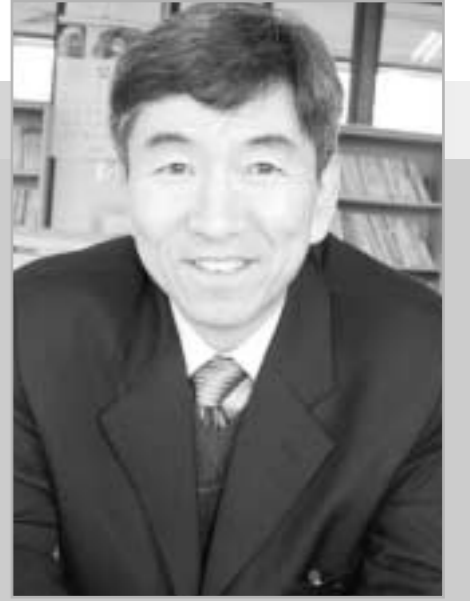
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교육청 변진수 교육장은 “이번 행사는 중·고등학교가 함께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고3학생들의 수능관계로 별도로 개최했다”

며 “내년에는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고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학생들의 대축제로 만들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역배기자 94spice@hanmail.net

### 교사탐구 2

### 송우초등학교 교감 손진홍



지난 75년 충북 영동에서 교직에 입문한 뒤 1984년 포천초등학교에 부임하면서 포천시와 인연을 맺게 되어 20년동안 포천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온 손진홍(52.사진)송우초등학교 교감을 만났다.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며 “사람을 만드는 것은 변화시키는 것이며 사람의 몸과 마음이 부딪치지 않으며 변화가 불가능합니다”는 교감의 평소 교육론이다.

송우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시절인 지난 2001년 학생들의 밴드부를 지도하면서 또 다른 특기적성 교육을 시도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사물놀이반’을 만들어 큰 교육성과를 일구어 낸 것은 손 교감의 이같은 교육론이 큰 힘이 되었다.

결국, 사물놀이반은 한 기업 대표의 물질적 지원과 또 전문예술인의 도움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으며 각종 대회에 나가 기량을 겨루 탁월한 기량을 선보이는 등 교육성과를 일궈냈다.

포천초등학교 밴드부 육성에 남다른 기여를 해온 손 교감은 늘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돕기도 했다.

특히 스카우트, 과학탐구활동 등에 주력하기도 했는데 교실 수업은 지식 전달 체계로서의 기능밖에 할 수 없으며 공허한 것일 수 있다며 이같은 특기적성 활동을 통해 전인교육의 새장을 열어 나가고 있다.

손 교감은 “어린 시절에 그림을 한 장 그린 적이 있었는데 마침 선생님이 그 그림에 대해 칭찬을 해주셨을 때 받았던 그 희열이 오늘날까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손 교감은 포천문인협회 창립회원으로도 활동해왔다. 문인협회 창립이전에는 포천예술인동우회 문학분과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때는 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었지만 신규교사들이 2~3년이면 다른 곳으로 진출을 가기 때문에 지속성이 가질 수가 없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문인협회가 창립하고 각종 백일장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글쓰기 솜씨가 향상되고 있는 것은 글쓰기를 주도한 교사들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손 교감은 “교사는 자기개혁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대학의 인식년 제도와 같이 초·중·고 교사들도 이같은 제도를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그래서 교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며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30년 전에 배웠던 것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학생들에게 교육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손 교감은 “문화 예술 교육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아주 중요하며 실제 학생들에게 큰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손 교감은 지난 87년 제3회 과학교육분과 현장연구 1등급 교육감상 수상, 89년 과학기술교육 우수교사 문교부장관상 수상등 과학교육 분야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95년 밴드지도 유공으로 제2정무장관상을 수상했고 포천청년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지역발전 공적자로 표창을 받아 지역사회로부터도 인정받는 교사로 활동해왔다.

손 교감은 또 포천초등학교 밴드부 학생들이 참가한 제18회 경기도학생예능발표회에서 경기도교육감상을 수상했고 제5회 문화체육부장관기 마칭경연대회에서 한국마칭밴드연합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 95년 포천군수로부터 교육부문 포천문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그해 향토문화창달 유공으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2001년과 2003년에는 특기적성지도우수, 특기적성교육 지도 표창을 경기도교육감으로 수상하기도 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 맞벌이 부부의 자녀교육

### ■아름다운 가족 15■



### 김영진

포천시청소년상담실장  
경북대학 학사지원처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부모는 목표 지향적이어서 자녀들이 실수 없이 빠른 속도로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지만 이 시기에 놓인 자녀들은 오히려 시행착오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숙해진다. 부모는 뒤면서 자녀들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지만, 자녀들은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경험하고 싶어한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로막힌 생각의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벽은 뛰지 못하는 자녀에게 뛰라고 소리칠 때마다 조금씩 높아져 간다. 함께 걸으면서 확인하고 생각의 높이를 자녀 쪽으로 낮춰주는 것이야말로 벽을 허무는 가장 기초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최근해서 들어온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에게 ‘오늘 무엇을 배웠느냐’고 묻기 전에 ‘오늘 너에게 색다른 일은 없었나?’, ‘오늘 한 일 중에 뭐가 제일 신났나?’ 부터 물어보자.

“우리 철수, 오늘은 뭐하고 놀았나?”, “텔레비전 봤어요?”, “음, 그래,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숙제가 있어서 TV프로는 못 보고 교육방송을 봤어요.”, “저런, 놀지도 못했잖나.

공부한다고 힘들었지. 텔레비전 본 것 말고 뭐 색다른 일 없었나?” “음~ 뭐가 있었더라.....”

우선 자녀의 행동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전에 먼저 아이의 사고방식부터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생각의 변화’가 어려울 때는 순서를 바꾸어 ‘행동의 변화’부터 유도해 보는 것도 방법 일 수 있다. 보편적으로 부모는 ‘생각이 변해 야 행동이 변하지’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 너도 알아서 열심히 해야지.’ 라고 골담 말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자녀에게 심리적인 압박감만 줄 뿐이다. 그러나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한다’는 생각으로

‘네가 요즘 과학에 관심이 많은가 보더라. 엄마가 과학에 관심이 있으면 너도 과학에 관심이 많아질 거야.’ 라고 말해 보자.

자녀에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집에 들어와 보니 방 안은 아수라장이고 동생하고 다투고 있다.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하거나 만화책이나 오락을 하고 있는 자녀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는 고통을 지르거나 화를 터뜨린다.

이때 자녀는 주춤주춤 주변을 챙기기는 하겠지만 이 상황은 또 다시 반복될 것임에 틀림없다. 아이에게 생각의 변화를 심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이를 이해시키지 못하고 당장 명령만 늘어놓았기 때문에 아이는 아무 생각없이 그 명령에 따를 뿐이다.

최근하여 집에 들어왔을 때 자녀가 설사 텔레비전에 빠져 있다고 해도,

“무슨 재미있는 거라도 하나?” “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이 아빠보다 철수를 더 기쁘게 만들까? 이거 질투 나는 걸.” “요것만 보고요.” “그래, 그것만 보고 아빠하고 얘기하자.” “아, 아니에요. 됐어요. 그만 블래요.” 라고 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이나 충고만 앞세우지 말고, 자녀의 말이나 표현이 변화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시선을 다량화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자녀는 스스로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 바빠서, 평소 자녀에게 잘해 주지 못한다는 자책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꺼번에 표현하려고 하거나, 주말 나들이 혹은 선물로 보상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으로는 그다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늦은 귀가 후 지치고 피곤한데도 자녀의 숙제는 한번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자는 아이를 깨우거나 때 아닌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 역시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또 부모가 자녀 문제를 두고 서로서로 떠미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엄마와 아빠의 애정과 역할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균형있는 보살핌이 선행될 때만이 아이도 함께 따라 갈 수 있다. 그렇게 못할 만큼 피곤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라면 자녀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녀와 함께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엄마가 오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거든. 철수를 도와줘야 할 텐데 엄마가 이렇게 피곤해서 어쩌지?” “그렇다면 제가 한 번 더 해보고 안되면 엄마한테 부탁할게요.”

“그래, 엄마는 철수를 믿으니까 철수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대신 내일 아침에 엄마가 봐줄게.” “에.” “그러려면 철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게요.” 부모는 자녀가 오늘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신뢰감을 주면서 어떤 도움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러는 동안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다음 변화를 위해서 서로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함께 탐색한다면 문제는 한결 가벼워진다. 필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밤 10시경 집에 귀가했는데 큰 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오늘 잘 놀았나?”, “지금 피곤하세요?”, “많이 힘들지,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그런데 뭐 부탁할 것이라도 있나?”, “음...수학 시험문제 좀 내주세요.”, “지금? 왜?”

“학교 숙제인데...아빠가 시험 문제를 20문제 만들어 주시면 시험 봐야 하거든요.”

“좋아, 아빠가 씻는 동안만 기다려.”, “에.”

사실 ‘지금까지 숙제도 안하고 뭐하고 놀다가 문제를 내달라고 하느냐’고 야단을 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꼭 잡고 한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동안 화는 누그러들었다. 부모가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역할을 외면할 수 없듯, 맞벌이 부부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자녀교육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 보통 부부에 비해 고품질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한다.

##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것 특기적성을 통한 전인교육

### 윤증성의 미국어 따라가기

76. 미안 하지만, 수건이 없는데요.  
Excuse me, I don't have any napkins.  
익스큐스미, 아이던해배내내후킨스

\* 미안합니다, 잣다 드리겠습니다.  
Sorry, I'll go and get some for you.  
소리, 아이고겟셋취유

77. 점심 정말 잘 먹었습니다.  
It was a really nice lunch.  
잇위서워워라나이스런치

\* 뭘요, 이제 돌아갈 시간 이네요.  
You bet, it's now time to get back to work.  
유벳, 잇스나우타임투겟백투웍



\*문의:윤증성  
(017-723-4977)cooyoon@nat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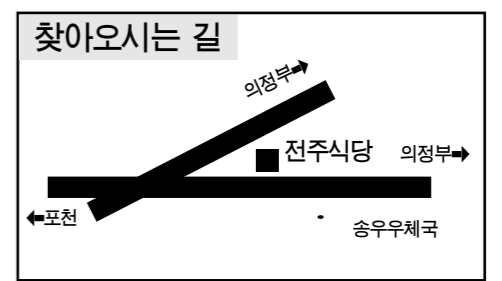
# 맛의 차별화를 선언한 한식전문 전주식당이 정성을 다한

새로운 메뉴를 고객들에게 선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 부탁드립니다.



- 아구찜/탕(대 35,000 중 25,000)
  - 꽃게찜/탕(대 55,000 중 35,000)
  - 해물탕(대 40,000 중 30,000)
  - 낙지전골(대 30,000 중 20,000)
  - 낙지전골(대 30,000 중 20,000)
  - 제주갈치조림 (대 40,000 중 30,000 소 20,000)
  - 가마솥정식백반 7,000
  - 부대찌개 5,000
  - 삼겹살 6,000
- ◆백반 가격인하 6,000 → 5,000

<특선메뉴>  
해물탕/꽃게찜·탕/제주갈치조림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8/전화 : 031-542-3912/대표 : 김 형 준